

화산학의 교과서 수월봉

세계지질공원의 명소인 수월봉은 화산활동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어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이다. 해안가에 길게 펼쳐진 층리들은 화산활동의 현장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주도 형성의 비밀을 품고 있는 그 거대한 현장을 만나보자.



고산로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822-17 ~ 한경면 고산리 2605(약 1km)

노을해안로 |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52-4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51-11(약 12.8km)

용고로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140-40 ~ 한경면 용수리 2841-4(약 3.2km)

한장서길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87-1 ~ 한경면 고산리 3880-1(약 0.5km)

칠전로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865-1 ~ 한경면 청수리 2912(약 6.5km)

전담길 |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52-1 ~ 한경면 고산리 257(약 0.8km)

고산로 | 고산리

고산로는 제주의 서쪽 끝 마을인 고산리의 중심을 지나는 길이다. 고산리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 고려시대 원나라는 이곳에 서아막이라는 목장을 설치해 많은 말을 들여와 키우기도 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마을이 바다와 가까워 왜적이 자주 침입을 했다. 그래서 차귀진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마을을 보호했다. 고산리의 마을 이름은 몇 번에 걸쳐서 바뀌었다. 초창기에는 차귀도와 차귀진이 있어 차귀(遮歸)라고 불리다가 두모리에서 이주한 사람이 설촌을 한 마을이라는 뜻의 신두모(新頭毛)로 불리기도 했고, 이후 마을이 점점 커지자 마을에 있는 오름인 당산봉의 이름을 따서 당산리(唐山里)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자 마을 이름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 수월봉의 옛 이름인 고산(高山)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고산리는 세계지질공원의 명소인 수월봉을 비롯해 고산리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당산봉과 낚시배들이 드나드는 자구내포구가 유명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노을해안로 | 수월봉



수월봉

제주도 서쪽 해안가를 지나는 노을해안로는 해가 지는 방향을 따라 이어진 해안도로이다. 제주의 동쪽 지역이 해가 떠오르는 경치가 유명하다면 서쪽 지역은 해가 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수월봉이다. 수월봉은 약 1만 8천 년 전 땅 속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지하수를 만나 격렬하게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형성되었다. 수월봉의 절벽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층리의 연속적인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화산학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수월봉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남겼다.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수월봉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수월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유래에는 수월이와 녹고의 전설이 전해온다. 고산리 마을에 수월이와 녹고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가 병에 걸려 낫지 않자 100가지

약초를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녔다. 99가지 약초를 구하고 마지막 약초인 오갈피를 절벽에서 발견한 남매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월이가 녹고의 팔을 잡고 절벽을 타고 내려가 오갈피를 캐어 녹고에게 건넸다. 마지막 약초를 쫓다는 기쁨에 녹고는 그만 수월이의 손을 놓고 말았다. 그 순간 수월이는 절벽 밑으로 떨어졌고, 녹고는 죽은 누이를 생각하며 몇 날 며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샘이 되어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월이와 녹고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이 오름을 수월봉으로 불렀다고 한다.

수월봉 인근에는 역사적인 유적들도 다수 존재한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고산리 선사유적지는 수렵채집 생활을 했던 옛날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고, 자구내포 구에는 배들을 안전하게 유도했던 등대 역할을 한 도대불이 남아있다. 또 수월봉 절벽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연합군의 상륙을 감시하기 위해 뚫어놓은 갯도진지의 현장도 볼 수 있어, 자연과 역사교육의 장으로써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노을해안로 | 차귀도

노을해안로의 또 하나의 명소는 차귀도이다. 제주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차귀도는 호종단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제주에 뛰어난 인물이 나올만한 지맥과 수맥을 모두 끊고 다니던 호종단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이곳에서 배를 띄워 중국에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라산신이 변한 커다란 매가 나타나 호종단의 배에 앉자 바다가 험해지더니 호종단의 배는 두둥강이 나 침몰하고 말았다. 그리고 매는 그대로 바위로 변해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호종단이 돌아가는 것을 막은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을 차귀도라 부른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광양왕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차귀도 주변에는 감자를 닮았다는 지실이섬, 사람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누운섬, 철새들이 모여드는 생이섬, 상여처럼 보인다는 상여섬 등 여러 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매바위

용고로 | 당산봉



당산봉에서 바라본 전경

용고로는 당산봉 옆을 지나며 고산리와 용수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수월봉과 마주보고 있는 당산봉에는 차귀라는 이름과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 온다. 옛날 한 목동이 바다에 나갔다가 뱀이 들어있는 상자를 줍게 되었는데, 당산봉에 당을 마련해 그 뱀을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래서 뱀신을 모신다는 데서 사귀(蛇鬼)라고 부르다가 이것이 변해 차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이증(李增)의 <남사일록>에는 “차귀당은 차귀악의 기슭에 있는데, 뱀 귀신을 위한 무속사당이다. 지붕, 벽, 들보, 초석에 무리진 뱀들이 서리서리 얹혀 있으나 제를 지낼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상서롭게 여긴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뱀신앙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당산봉의 정상 부근에는 거북바위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예전에 삼반석이라고 불렸다. 전설에는 윤무순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자 육지로 나갔다가 왕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왕이 당산봉에 있는 삼반석에 대해 물어보자 본적이 없으면서 아는 척을 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거북바위에 오르면 고산리의 넓은 평야와 바다와 맞닿은 수월봉, 그리고 차귀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차귀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의 모습이 일품이다.

한장서길 | 한장동

한장서길이 지나는 한장동(漢場洞)은 수월봉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한장동은 ‘넓고 비옥한 평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뜻에서 ‘너븐드르’라고 불렸다. 이후 한자어로 표기하면서 넓은 밭이라는 광전(廣田)이라고 하다가 비슷한 발음인 한장(漢場)이라 표기하게 되었다. 한장동은 19세기에 차귀조방장을 지낸 조광운이란 사람이 사위와 함께 정착해 살면서 설촌했다고 한다. 이 지역의 넓은 평야는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서 마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목장에서 기르던 소와 말이 자주 밭에 들어와 농사를 망쳐놓곤 했다. 조방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 마을마다 밭담을 쌓고 관리자를 두어 소와 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농사의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공덕비를 세워 그를 기렸다고 한다.

칠전로/전담길 | 칠전동과 전담동

칠전로는 고산리의 중심인 고산육거리에서 산양리 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다. 이 길의 이름은 고산리 동쪽에 있는 칠전동이란 마을의 명칭을 반영했다. 옛날 이 마을에는 밭이 일곱 개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곱드루라고 불렀는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칠전동이 되었다고 한다.

칠전로를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자그마한 마을길인 전담길과 만난다. 전담길은 이 주변 마을인 전담동(田畓洞, 錢沓洞)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예전에는 이 동네에 논밭이 있어 이를 귀하게 여긴 데서 마을 이름을 ‘도논’이라 부르다가 전담동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는 마을이 돼지논과 비슷한 형태여서 뚫논이라 부르던 것이 돈논으로 바뀌었고,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전담(錢畓)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